

# 한파 녹이는 자비행 '밀물'

### 실직가정·소년가장·장애인돕기 하루차집 자선공연 김장서비스 등 지역사우련-불교복지관 앞장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대기가 절실해지는 계절.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5일부터 실직가정 겨울나기 지원사업인 '우리가 남인가' 사업을 펼친다. 또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결식아동들을 위해 교계 산하 30여복지관 중 결식아동 프로그램을 준비중인 복지관에 급식을 지원한다.

서울 은평구사우련협회(회장 성운·삼천사주지)는 내년 노인의 해에 맞춰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및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김장김치배달봉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

다. 시연사 진관사들 각 회원사할 별로 실시되는 김장김치 배달봉사는 세차례로 나눠 12월까지 실시된다. 또 은평구사우련협회는 이달 중은 은평구청 공무원복지들의 모임인 불신회와 합동으로 불우이웃돕기 특별법회도 연다.

부산 사하구사우련협회(회장 홍원·여래사주지)는 26일 사하구청 강당에서 소년소녀가장 20명에게 총 4백60만원의 생활금을 전달한다. 이날 전달하는 생활금은 11월 24일 소년소녀가장들이 하루차집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이다.



연말을 맞아 전국 각 사우련협회를 중심으로 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등 지역내 불우이웃을 찾는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불교연협회(회장 선웅·청룡사주지)는 불교복지회와 연계해 지역내 장애자, 중증환자, 무의탁 독거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목욕이동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의정부·양주불교사우련협회(회장 혜승·의정부포교원 주지)는 좋은 일하는 사람들이 모임과 연계해 5일 의정부역 광장, 중앙로 등지에서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및 독

거노인돕기 길거리 자선공연을 펼쳤다. 길거리 자선공연으로 모아진 기금은 결식아동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식비 난방비 등으로 지원하게 된다.

부산 연제구사우련협회(회장 원광·정수사주지)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연산 6동내 결식아동 50명에게 쌀, 라면 등을, 영진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쌀 2가마씩을 각각 전달했다.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해창)은 2일 지역 장애인 가정 및 무의탁 독거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 50대에 쌀 1천kg과 김장용 김치 4백포기를 나눠주는 '겨울맞이 자비의식물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한국불교사회복지회(회장 송지연)는 11월 29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불우한 어린이 환자들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하루차집을 열었다.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들이 음악회도 잇따라 마련된다.〈관원기사 7면〉 10일 화계사합창단, 13일 대구경북불교음악인협회, 19일 맑고향기로운 음악회가 각각 열렸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opia.com)

## 우리절 불사 영각사 영묘전



21세기 최첨단 증원형 납골당 불사가 현창인 시흥 영각사 극락영묘전 불사 모습. 원내는 주지 현법스님.

## 현대식 공원형 납골당 조성

장묘문화의 새장을 열게 될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공원형 납골당이 경기도 시흥시 군자봉 자락에 조성되고 있다.

지장도량 영각사(주지 현법) 극락영묘전, 총6만평의 부지에 96년 종합불사 일환으로 기공돼 현재 막바지 골조공사가 한창이다. 건평 1천6백여평에 지하 2층규모로 건립되는 극락영묘전은 내년 부처님오신날 1차 회향되며 99년말 최종 회향될 예정이다.

6만평 2만5천기 안치  
실향민 위령·망향탑 건립  
휴게소등 편의시설 갖춰

장묘문화의 새장을 열게 될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공원형 납골당이 경기도 시흥시 군자봉 자락에 조성되고 있다. 건평 1천6백여평에 지하 2층규모로 건립되는 극락영묘전은 내년 부처님오신날 1차 회향되며 99년말 최종 회향될 예정이다.

현법스님의 이같은 납골문화에 대한 답사를 실시했다. 스님은 "외국의 납골당은 신임제에 따라 독특한 장묘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불교와 유교가 혼합돼 있음을 답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불교의 장묘문화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불교의 자립적 재정기반 마련 등을 위해 납골당 불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각사는 영묘전 불사를 계기로 불교 장묘문화의 새장을 연다는 복안이다. 이를위해 백중, 지장제일, 한식 등 연중무휴의 영가천도기도를 봉행하며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와 화장, 운구의식을 집전하게 된다.

한편 영각사는 현재 극락영묘전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0345)498-7700 김종근 기자

## 부산시내 노천불상 6기 파손

### 연천2동...인분도 뿌려 타종교 광신자 소행인듯

문수·보현보살상, 사천왕상 등 모두 6기의 불상 목이 잘리는 훼손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시 동래구 연천2동에 위치한 팔 청수암 노천불상이 훼손된 것은 11월 27일 새벽 3~4시경. 높이 1백50cm의 사천왕상 4기와 보현보살 1기, 문수보살 1기 등 6기의 불상 머리와 코부분이 흉기에 의해 파괴되고 불상과 불단에는 인분까지 뿌려져 있었다.

청수암측은 이번 훼손사건이 타종교를 맹신하는 신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수암 주지 보광스님은 "어떤 이유든지 참배와 의경의 대상인 불상을 훼손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불자 한사람 한사람



11월27일 새벽 부산 청수암에 훼손사건이 발생해 문수·보현보살상 등 총 6기의 불상상이 절러져 있다.

이 훼손을 방지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훼손의 정도로 봐서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추정하고 장비를 갖춘 2~3명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1월 27일 새벽에는 비가 내려 산별

## 충북 불교문화회관 상량식

### 6층건물 내년 6월 완공

충북불교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만호)는 11월 27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공사현장에서 정일 선학원 이사장스님, 해광 법주사 주지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량식(사진)을 거행했다.

연건평 1천3백48평에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되는 충북불교문화회관은 음성포교를 전담하고 있는 청주불교방송국을 비롯 청수암 포교시설과 시민선방, 공연장 등 충북 불교계의 중추적 단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1층에는 서점, 전통차집, 불교용품점이, 2층에는 어린이 집, 청소년 파라미타 상담실이, 3층에는 청주불교방송국이, 4층에



는 대·소회의실, 공연장, 청주불교방송국 문화사연단, 휴게실이, 5층에는 직장직능 신협단체사무실, 종무실, 세미나실, 잔물개 교실이, 6층에는 법당, 시민선방, 불교교양대학이, 지하~2층에는 주차장 소극장 등이 각각 입주해 전방화동을 펼치게 된다.

충북불교문화회관은 내년 6월경 완공될 계획이다. 김종근 기자

## 제주 청교련 '우리문화 자강운동' 전개

### 대안불교청년교우회연합회 제주지부(지부장 구봉식)는 5일 한라체육관에서 '우리문화 자강운동'을 전개했다.

일본문화 개방을 맞아 우리 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우리문화 자강운동'에는 제주일교, 신성여고 등 17개교 5천여명의 중·고교생이 참여했다.

이날 '우리 소리가 멋있다'를 주제로 국악인 김준호·손심심씨의 강연이 열렸고, 한라체육관 인접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추방 캠페인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청교련 회장 현성스님, 제주도 우금민 도지사,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강지원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opia.com)

## 인천불교연회장 선승스님

인천불교연회장은 11월 30일 교육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21대 회장에 청룡사 주지 선승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번 회장 선거는 前회장 도해스님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뤄졌다. 신임회장 선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임기동안 각 사할간의 화합을 통한 사회 복지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승스님은 40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 53년 화정사에서 차종필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김종근 기자

## 유적지에 관사 건립 '빈축'

### 경주박물관 옛 관아터 훼손...시민단체 반발

국립경주박물관이 조선시대 관아터였던 유적지에 박물관관사를 신축해 경주지역 문화단체 회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와 남산사랑모임 등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은 11월26일 국립경주박물관이 박물관 옛 부지에 20여평 규모의 박물관관사를 건립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강행하자 문화재 훼손 우려가 높아져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박물관관사가 건립될 주변지역은 최근 발굴조사에서도 조선시대 관아터로 재확인됐으며 관사가 건립될 경우 신축건물 담장이 바로 옆에 있는 경북도 기념물 66호로 지정된 수령 5백년 우렁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허가를 내준 경주시도 이같은 여론에 따라 성건동과 흥효동의 사유지에

관사를 짓도록 박물관측에 권유했으나 거절당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opia.com)

경북불교대 수행법회

경주 한국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스님) 부설 경북불교대학은 11월 28~29일까지 1박2일간 불국사 대웅전에서 수행법회를 개최했다.

1백여명의 수강생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수행법회는 성타스님(불국사 주지)의 법어, 돈관스님(한국불교사회연구원장)의 '참 나를 찾아 떠나는 길-수행', 정석준 법사의 '올바른 종교관의 확립'이란 주제의 강의에 이어 용맹정진 기도회가 진행됐다.

김종근 기자

## 관음종 증정 대천스님 입적

관음종 4대 증정 운호 대천대종사가 4일 새벽 1시30분 주석처인 논산 관음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78세 법랍 65세.

평생동안 관음기도 정진을 해 온 대천스님은 192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1934년 공주 신원사에서 응암스님을 은사로



도독했다. 영결식과 다비식은 8일 10시30분 논산 관음사와 천안 보명사에서 봉행됐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 불교정보화의 새로운 출발

## HOME TV INTERNET

기존의 TV 하나만으로 불교정보화의 길이 열립니다.

**HOME TV INTERNET으로 만드는 사찰전산화**

- 기존TV에 단말기 연결
- 컴퓨터를 몰라도 간단한 리모콘동작만으로 인터넷 가능
- 불교계 뉴스를 현재시간으로 확인
- 국내외 인터넷 정보 사용 및 불교정보 검색 가능
- 사찰에서 TV를 통한 인터넷 접속 및 전자우편 확인
- TV를 통한 설법 가능
- 향후 설법 중계기능 (비디오)
- 신영상담/불법공부/신도와의 대화기능
- 다양한 뉴스, 홈쇼핑, 경제, 문화등의 다방면의 실용 정보 제공
- 화면 칼라 프린팅 지원
- 불교신자들간의 대화 공간 제공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HOME TV INTERNET의 강력한 기능**

- 비디오와 같이 손쉬운 연결
- 기존 전화선을 이용한 PC 통신보다 최소 20배 이상의 고속 인터넷 접속
- 마우스 내장된 무선키보드를 기본 제공하여 인터넷 검색이 편리
- 인터넷망을 이용한 운영체제(OS) 자동 업그레이드
- 지루한 부팅 시간 없이 5초내 단시간 인터넷 접속
-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 TV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성 및 공간활용이 뛰어납니다.

● HOME TV INTERNET 구성 : 기존TV + 단말기 + 무선키보드, 마우스 (단말기 가격 395,000원, 부가세별도)

● 인터넷망 : 케이블TV, ADSL, ISDN, LAN, 전화선

■ 사찰정보화 협력업체 : (주)현대불교신문사

**HOME 홈TV인터넷(주)**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91-6 삼경빌딩 3층 · 문의전화 : 02-295-6660

http://www.home.co.kr